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열방에 대한 심판 (스가랴 14:12-21)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특별히 성도로 지명 받은 예루살렘이 이방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만큼 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

메시아의 날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생수가 솟아나와 동해로,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며 큰 축복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8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허락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뼈만 남았으니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죄의 출구인 눈동자가 썩고, 하나님을 대적한 혀가 썩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이와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곧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했을 때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절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13절).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제 삼자가 아닌 바로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14절).

하나님 백성을 치러 온 원수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예루살렘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피가 많고 재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에 의는 다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원수뿐 아니라 저들에게 속한 동물들에게까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15절).

간혹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나 스승을 대적하는 제자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만큼만 알 뿐입니다.

2. 새로운 약속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16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예배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므로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물을 거두시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성결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죄의 족속 가나안 사람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사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실을 감사하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같은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예배는 감사 예배이며, 우리는 매일을 초막절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매일을 초막절로 지키며 감사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초막절을 지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환경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예배 방법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항상 초막절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이므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라는 말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17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물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일반 은총까지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비’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므로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물을 거두시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성결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20절). 이제 죄의 족속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없고, 모든 사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21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 · 사도신경 새번역 확정, 선포하다

지난 12월3일(금) 우리교회 비전홀(802호)에서 한국 기독교의 양대기구인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총)의 전문위원 62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기도 · 사도신경 새번역이 확정 선포되었다.

전문위원들과 기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발표된 주기도 · 사도신경 새번역은 전문위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립하여 박수로 받았으며 양 기관의 실행위원회에서 통

과시켜 각 교단별 총회에서 받게 된다. 또한 대한성서공회 는 수시번역의 규칙에 따라 마태복음에 새번역을 적용하 게 된다. 찬송가 공회도 통보를 받으면 즉시 새번역을 찬송 가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교회는 기도로 이 일을 지원하여 온 서울교회 성 도들에게 감사하며 오늘 날자 순례자에 발표된 새번역을 소개한다.(2~4면 참조)

오늘부터 임명식 시작된다 오늘은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2005년도를 섬기며 봉사할 일꾼들에 대한 임명이 오늘 부터 시작된다.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은 오늘 주일예배 시 간에 임명받게 되고, 교구일꾼은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열리는 교구총회에 참여하게 된다.

임명받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 도록 한다.

2005년도 서리집사 명단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 어 있다. 각위원회 및 각 기관별 임명식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 일 자 | 위원회, 기관, 부 서 |
|--------|--|
| 12월5일 | 교구일꾼 및 서리집사(1,2,3부) |
| 12월12일 | 1부 예배: 가브리엘, 예배위원(안내, 현금)재정(계수)/1,2,3부 2부 예배: 할렐루야, 그레이스, 은빛 3부 예배: 임마누엘 아멘, 필그림 찬 양 예배: 베들레헴, 갈렙, 글로리아, 새벽기도, 금요일야, 찬양대양성반, 예배지휘자, 피아니스트, 찬양, 식당관리위원 |
| 12월15일 | 수요 예배: 호산나, 시온 |
| 12월19일 | 1부 예배: 교육1국, 멀티미디어, 순례자, 상담부, 창조회, 장학회 2부 예배: 교육3국, 5국, 전도위(70인 전도대) 3부 예배: 교육2국, 4국 |

2005년 순결서약식 접수 시작

2005년 1월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

서울교회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 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오는 2005년 1월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않는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 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 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 으며 접수는 12월26일(주)까지 받는다.

11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고유원 구건우 구기원 구현정 권성미 권진희 김경민 김교은 김광우 김대현 김택주 김미림 김미정 김선혜 김영권 김영희 김애나 김원명 김인영 김정경 김정재 김준서 김준원 김진근 김차영 김태봉 김한상 김현숙 김홍석 남봉현 남선우 남윤호 노광신 류정순 문계숙 문상엽 박경미 박노형 박대영 박민아 박민호 박상현 박장우 박정연 박정인 박장은 박후남 서단옥 소정영 송승근 송인근 송호신 안정현 안치영 안호상 오세현 오향숙 유숙미 유형승 윤상호 윤순임 윤희순 이경민 이경희 이동현 이선희 이상목 이상표 이윤숙 이정임 이정호 이주호 이지혜 이진주 이충민 이충연 이향숙 이현숙 이현주 이호자 임정순 장문단 전수복 전장원 정매자 정미숙 정순임 정승용 정원조 정윤용 정정화 정태경 정태준 조길수 지승연 차명숙 최상필 최계성 최진실 한진희 황역구 (이상 102명)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 계속 접수

전도위원회는 농어촌 100교회 후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도위원회는 2005년도에 2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6개 교회와 결연 확정되었다. 명단은 다음 주부터 실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기도 · 사도신경 새 번역(안)

I. 경과보고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7회 총회는 현행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바르게 번역하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고 1년간 전문위원 9명의 교수들로 연구케 한 바 제88 회 총회가 재번역안의 채택은 보류하고 한국교회가 통일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결의하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두 기관으로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의 요청 을 받아 두 기관 각각 주기도 · 사도신경(전문)위원회를 구성 하다.

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04년 6월 18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종윤목사)를 구성하고 주기도문 분과(서기:조병수 교수)와 사도신경 분과(서기:나용화 교수)로 나누어 각각 6 차례씩 연구모임을 갖고 2004년 12월 3일 최종안을 내놓는다.(전문위원 명단 첨부)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04년 7월 22일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의 요청을 받고 주기도 · 사도신경 연구 특별위원 회를 구성기로 결의한 후 9월 10일 특별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목사, 서기:강영만목사)를 구성하고 1차 연구위원회를 시작으로 3차례 연구 모임을 갖고 2004년 12월 3일 최종안 을 내어 놓는다.(연구위원명단 첨부)

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특별연구 위원회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회는 2004년 12월 3일 합의된 주기도 ·

사도신경 새 번역안을 도출함으로써 한국교회연합과 발전에 기여키로 하다.

II. 주기도 · 사도신경 새번역(안)은 다음과 같다.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¹⁾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²⁾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 원문(αου)은 '당신의' 라는 뜻이다.
2)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서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도신경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²⁾ 사흘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사도신조' 로도 번역할 수 있다.
2)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 가신지' 가 공인된 원문(Foma Recepta)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III. 주기도 새번역에 대한 해설

1. 주기도 번역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다.

① 주기도는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이 있으나 예 배용으로 마태복음의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태 복음 본문의 주기도를 번역기로 한다.

② 연합성서공회(UBS)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3판)의 난 하주에 있는 송영도 본문으로 간주하고 번역한다.

③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되 기도문이므로 현대 문어체 로 정중한 표현을 하기로 한다.

2. 번역 해설

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호격이므로 '아버지여' 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 여 '여'를 붙이지 않는다.

②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당신의(σου) 이 름을 거룩하게 하시고'라야 원문에 맞는 번역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경우 우리말의 정서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2인칭 대명사로 대체하여 '아버지의'로 번역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던 주기도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당신의(σου)가 세 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강조용법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 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반복되어 번 거로운 느낌이 든다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강조됨으로 기도 문의 정신이 더 뚜렷해진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사동형인데 사동주 (아버지)와 피사동체(아버지의 이름)가 동일 존재이기 때문 에 어색해 보이나, 이를 수동태로 번역할 경우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는 헬라어 어법상으로는 오류 가 없으나 '거룩하여지게'는 우리의 입에 익혀져 있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있다. 따라서 음절수를 줄여 '거룩해지게'라 고 번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번역 원칙③에 의거 원문에 충실하되 기도문이므로 현대 문 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찾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우 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었음을 각주 로 넣고 짧은 기도문에 더 힘 있는 표현으로 전환규칙 (transformation rule) 능동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로 번 역한다.

③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나라이 임하옵시 고' 보다 현대어법에 맞는 번역이다. 여기서 '오게 하시며' (εἰθέτω)는 바로 앞의 구절의 동사 '거룩하게 하시며' (αγιασθή ητω)와 다음 구절에 있는 동사 '이루어지게 하소서' (γεννηθή ω)가 수동태인데 반해 이것만은 능동태로서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아버지의 나라 자체인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3인칭 능동태 명령형인 'εἰθέτω'를 '나라가 오소서' (Let thy Kingdom come)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기도문 초두에 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 대상으로 불러놓고 그에 대하여 기원하는 내용이므로 하나님(아버지)을 동작의 주체 로 하여 사동형(使動形)으로 표현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 게 하시며'가 된다.

④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동사 γεννηθῶ를 두 번 번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 는 문제가 있다. 헬라어 원문에서 동사가 한 번 나타나고 또 뜻으로도 두 번 번역할 필요가 없는 이상 같은 말을 두 번 되 풀이 하는 것은 과잉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번역한 다.

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서 σήμερον은 하루(24시간)를 뜻하는데 우리말의 '오늘날'과는 다르다. 오 늘이라는 우리말은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날 (오늘의 시 대)을 뜻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매일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므로 오늘이라 번역한다. ἄστρος는 빵인데 별식이 아닌 주식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로 한다. 여기서 주시옵고는 지나치게 예스러운 표현이므로 좀 더 대 중적인 표현을 써서 주시고로 한다.

⑥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순서가 바뀌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죄 용서를 하나님으 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 로 맞는 것같이 보이나 실은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 자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이들로 남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다. 용서와 사해주시는 것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용서라고 번 역한다.

ὀφειλέταις와 ὀφειλήματα는 빚진 자(debtors)와 빚 (debts)을 말하나 여기서는 죄 지은 자와 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빚진 자 즉 잘못한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빚 즉 죄를 말한 것이다.

⑦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πειρασμόν을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 으나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시험을 쓰되 '빠지지 않게 하시 고'로 하면 시험의 성격이 분명해지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번역한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ποιητοῦ가 남 성(J.Weiss)인지 증성(Harnack)인지 학자들 따라 이견이 있 다. 증성이라면 악한 것 즉 '악에서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가 된 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끝 나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즉 두 동사에 '우리'가 다 목적 격이 되므로 우리들로 하였고 시험과 악이 연결되어 있어 넓 은 의미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한다.

또한 헬라어 ἄλλα를 단만으로 번역한 것은 좀 어색하다. 앞에 나온 것과의 차이나 대조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반의적 접속사로 그러나의 뜻이 있는데 또한 이라는 뜻도 있다. 시험 (유혹)과 악은 동질적인 것으로서 전반부에서는 부정적으로 후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뿐이다. 따라서 운율상 번역을 생각한다.

⑧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에 서 지금까지 쓰던 '대개'를 생각했다. 이것은 헬라어 ὅτι에 대 한 번역이다. 사실 ὅτι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 사로서 '왜냐하면 ... 때문이다.' (because, for, since)의 뜻이 있다. 이것을 직역하면 문장이 길어져 리듬이 깨지고 그렇다 고 대개라고 하면 대강 말해서인지 큰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상 분명치 않으므로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권세보다는 권능이 헬라어(δύναμις)에 더 적합한 단어로 판단하고, 영원히 당신의(σου)것 입니 다는 송영이므로 앞의 기원이나 간구와 같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정중히 번역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의 아름다운 운율이 마지막에서 깨질 수 있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끝난다.

⑨ 연결형 어미「-고」와「-며」는 시간적인 계기성과 동시 성을 나타내는 데는 그 의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밥 을 먹고 공부를 했다'에서는 두 동작 사이에 시간적 전후 관 계가 나타나는 계기성이 있고, '밥을 먹으며 공부를 했다'에 서는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고」와「-며」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 양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비가 오고(며) 바람이 불고(며) 천둥이 친다. 다만「-고」쓰임이「-며」보다 일반적일 뿐이다. 흔히 국어 표 현에서 동일한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조성을 깨뜨리기 위해「-고」와「-며」를 섞어 쓰기도 한다. 즉 '비가오고, 바람 이 불며'라고 한다. 주기도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형태이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앞의 단락과 뒤의 단락에 표현의 번

별을 두고 있다. 즉 앞부분은 콤마로 통일했고 뒷부분은 κα로 되어 있어 번역상「-며 -며」「-고 -고」로 통일한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로 번역한다.

IV. 사도신경 새 번역에 대한 해설

1. 번역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다.

- ① 750년 공인된 원문 (Forma Recepta)을 기본으로 하여 번역한다.
- ② 원문에 충실하되 항목별 개별성을 존중한다.
- ③ 신학적 검증도 함께 한다.
- ④ 오늘에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따른다.
- ⑤ 결정시 이견이 있을 경우 기도 후 다수결로 정한다.

2. 번역 해설

사도신경(CREDO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καὼν τῆς πί στευς* 헬라어로 신앙의 규범)는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 는지를 신조화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다.

십계명을 계명 중의 계명이라 하고, 주기도를 기도 중의 기 도라 한다면, 사도신경은 많은 신조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조 즉 신조 중의 신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도신조로 번역될 수 있으나 난하주로 설명을 하 고, 성경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신조이므로 '사도신경'이라 한 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문이다.

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 니다.'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문법상 고백자 즉 주어가 앞에 나와 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 믿습니다의 구조를 갖도록 한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이라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 지창조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되기 쉽다. 오히려 아버지로서 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 님이심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 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전능하 심'과 '아버지'가 나란히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을 수식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 중 정부 를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의미가 더 크 다.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차 례로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버지 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다.

②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위하여 Credo(나는 믿 습니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앞의 문장과 함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그 다음 문장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 의 '이'가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 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문장을 일단 '믿습니다'로 끊고,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또한(그리고) ... 믿습니다'보다 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이 '나는 ~ 믿습니다'로 번역한다.

그리고 현행 사도신경의 '그 외아들'은 '그의 외아들'로 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것은 지시대 명사가 아니라 제3인칭 소유격이기 때문이다. '외아들' (또는 독생자)은 헬라어 μονογενής(only, unique)인데 이는 숫자상 하나밖에 없다는 뜻보다 그리스도의 독특하신(유일하신)신

분관계를 나타낸 어휘다.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에 계신 분임을 말하려 한 것이다.

③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이라 할 경우 '이 사람' 또는 '이 사실' 등의 뜻도 있음으로 '그는'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으나 '말미암아'를 넣어 긴 고백문을 만들지 않고도 뜻이 확실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한다. 현행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대로 '잉태하사'라고 할 경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셨다는 말이 되므로 '잉태되어'라고 해야 한다. '동정녀'를 '숫처녀'라고 번역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표현의 품위와 내용으로 보아 '동정녀'가 더 바람직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로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로 번역한다. '나시고'는 '에게'와 합치면 '태어난다'가 아니라 '(아기를) 낳는다'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대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로 할 경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애를 낳아 주셨다'는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 된다.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 나셨고...'라는 우리말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우리말의 특징 중 역사적 현재라는 용법이 있어,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현실성 있고 생생하게 표현할 때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사도신경의 원문과 영어 번역문에서 과거형을 쓰고 있으나, 신앙고백으로서의 표현의 유연성과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현재형으로 쓴다. 과거형이 계속될 경우 마지막 부분만 과거로 하고 앞의 것은 현재로 해도 과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으며'로 번역한다.

또한 '잉태되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신 지'에서 굳이 존대어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시제를 같이 하는 몇 개의 동사가 순차적으로 겹칠 때에는 그 마지막 낱말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면 그 앞의 모든 시제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태되어',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로 번역한다.

④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는 빌라도의 사형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고난을 받으시고'로 번역한다. 빌라도에 의해서 직접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뜻은 아니다.

⑤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는 '잉태하사'를 '잉태되어'로 번역한 것처럼 '장사된 지'로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서 주어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내려 가셨다가'라는 말은 AD 200년의 이레니우스 본문으로부터 12개의 본문 중 서방 신조의 최종 본문인 750년의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을 포함한 3개의 원문에만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원문에는 빠져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

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는 고백의 항목과 기본 개념에 몇 가지 항목 또는 수식어가 부가됨으로 발전된 것이다.

가령, 처음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이었으나 그 후 7세기에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첨가와는 달리 '지옥으로 내려 가셨다가'라는 말은 오히려 생략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교단간의 신학적 해석이 다르고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단락은 교회연합을 위하여 새 번역에서는 현행대로 생략키로 하되 난하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로 번역할 수 있다. 사람을 간(者)로 쓴 것이다. '자'는 의존명사나 접미사로 쓰이는 것으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자립성이 없다. 약간의 비하시키는 느낌이 있으나 접미사로 쓸 경우 비속감이 없다. 예컨대 과학자, 신학자, 참석자가 그것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 경우 짧은 고백문이 너무 길게 되면 운율이 깨지고 사람이 크게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 죽은 자, 살아있는 자로 번역한다.

⑥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문에 있는 '아버지'가 번역되어 들어갔다.

⑦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현행 '저리로서'를 현대어 '거기로부터'로 번역한다.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확실한 미래를 말할 경우 현재형을 쓰고 있는 용법을 적용한 것이다.

⑧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틴어와 헬라어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대문자로 쓰고 성부와 성자는 Et(και)로 연결시키니 주동사가 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할 경우 '내가'를 쓰는 것보다 절대격(또는 배제격)인 '나는 ~ 믿으며'로 번역하여 더 강한 뜻을 나타낸다.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는 그 구성원인 성도를 가르치고 지킨다. 따라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처럼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나 그 다음 문장에 Credo가 없고 모두 콤마로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Et가 나오므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는 보편적 교회(catholic church, universal church)를 말한다.

'성도의 교제와'는 코이노니아(koinonia) 즉 교제, 사귄, 친교, 참여와 같은 여러 가지 뜻 중 '교제'라는 말이 고어인 '교통'보다는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교제와'로 번역한다.

죄를 용서 받는 것과는 성도에 관한 항목이다. 죄 사함에 대한 항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목은 첫째 항목이다. 여기서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관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몸의 부활과는 원문대로 '다시 사는 것'보다 '부활'로 번역한다.

영생을 믿습니다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를 번역한 것이다. '영생'은 끝없는 시간(endless), 무 시간(timeles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영생으로 한다.

V. 맺는 말

번역은 재창작이라 한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은 번역자의 의도나 신학적 편견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은혜가 되는 바른 번역으로 받아져 한국교회가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CORAM DEO !

VI. 새 번역에 참여한 이들:

이종윤 이수영 나채운 이형기 홍사만(예장통합) 정훈택(예장합동) 김완태 배중수(기성) 박근원 홍승진 김창락 최 영(기장) 유승훈 박종천(기감) 조재태 최덕성(고신) 나용화 이순태(예장 개혁) 김필수 이보탁(구세군) 김기석(성공회) 한철철(예장개혁-성내동) 예용범 정용철(압동보수A) 한성기 이정현(대신) 김영일 최창남 박찬용(복음) 이영훈 문한배(예성) 이영훈 강영만 박문옥 차준희(기하성) 김영재 조병수(합신) 임승안 박두환(나사렛) 한창영 최희용(개혁교회) 김창기 손선영(예감) 최덕신(예장고려) 이진희(예장성장) 엄진섭 김선희(루터회) 김광옥 이성환(기감연합) 김택기(그리스도교) 박성기 김규수(예장브니엘) 이준원 김병근(예장합동총신) 김진규 김준범(예장고려개혁) 김준철 박계순 정해선(KNCC) 박철원 임채문(한기총) 민영진(성서공회)

- 이창62명(무순)

등정

- 이종윤 목사는 6일(월) 비전2020운동 사역위원 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9일(금) 장로교 신학회를 소집하고 11일(토) 3사단 진중세례식을 집례한다.
- 개인전 : 고선옥 성도(13교구): (12월8일-14일) 단성갤러리 T. 722-5335
- 개업 : 김준희성도(2교구) 경희대 스포츠아카데미(삼성동) T. 518-0877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 남선교회(12. 5) 베드로 남선교회(12. 12)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저녁 9시5분 |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005년도 섬김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은혜를 배부소서
4. 국통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